



## 와우의 첫 책

주미경 글 | 김규택 그림  
문학동네 | 초등 3학년 이상

제18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활동1 『무지개옷을 찾아서』 1편 고쳐 쓰기 -「와우의 첫 책」

개구리 와우는 작가 구렌 씨의 이야기를 읽고 뒤를 잊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지개옷을 찾아서』 1편이 탄생했지요.

앗, 그런데 인쇄소의 실수로 책의 곳곳이 지워졌네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옛날옛날에 너불이라는 뱌이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글쎄 뱌이 되고 싶다는 거야. 너불이가 아이에게 물었지.

“왜 뱌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너불이가 “무지개옷을 가져다주면 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하지 뭐야.

무지개옷은 산꼭대기 깊은 동굴 속에 있는데, 그 동굴은 아주 무서운 괴물이 지키고 있다면서.

아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울퉁불퉁하고, 컴컴하고, 축축했어.

한참을 갔더니 동굴 천장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더래.

그 아래 검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지.

“무지개옷은 어디 있는 거지?” 아이는 연못가에 철퍼덕 주저앉았어.

그때 연못 속에서,

아이는 무지개옷을 소중히 품에 넣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

그런데 동굴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무지개옷이 너무 입고 싶었다.

## “살짝 걸쳐만 볼까?”

아이는 무지개옷을 살짝 머리에 얹어 보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 쿵 손님의 정체를 밝혀라!

## -「쿵 손님과 국수 씨」

「쿵 손님과 국수 씨」를 재미있게 읽었나요?

어느 산산한 가을, 칼국숫집에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상한 콧소리를 내는 쿵 손님은 칼국수를 후루룩 맛있게도 먹은 뒤,

빈 그릇에 도토리를 부어 주고 떠나곤 했어요.

국수 씨는 중얼거렸지요.

“허 참, 별 이상한 손님도 다 보겠네.”

대체 쿵 손님은 누구일까요?



① 쿵 손님은 누구일까요? \_\_\_\_\_

②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_\_\_\_\_

③ 쿵 손님의 특징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책 속에서 찾아 써 보세요.

(      쪽)

(      쪽)

(      쪽)

④ 쿵 손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 보아요.

## 활동3 아파트를 꾸며 보자 -「당깨 씨와 산딸기아파트」

“페인트칠하러 왔당께요!”

반달가슴곰 당깨 씨는 수레에서 페인트 통을 꺼냈어요.

산딸기나무가 빙 에워싸고 있는 낡은 아파트를 칠하려고요.

그런데 그만 급한 일이 생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깨 씨 대신 여러분이 산딸기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적힌 쪽지를 잘 살펴보고

아파트를 멋지게 꾸며 주세요.

산딸기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

5층(꼬마 산양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의사

(엄마 거)

4층(...)

주인을 못 만남

3층(늑대 할아버지네)

찻잔 (두 개)

2층(멧돼지 아줌마네)

산딸기피자 (먹음직스럽게)

1층(호두 선생님 댁)

아무거나

